



사내 News

- 신규투자: KST (코리아스타백)
- 안근영 팀장 특남

벤처캐피탈 News

- 모태펀드, 2006년 운용계획 확정 (1950억 출자)
- 모태펀드, GP 서밋 개최

투자업체 News

- 렉스피아: 아이트브릿지 계열사로
- 아바코: 케이이엔지와 35억 공급계약
- 오이유직: 영진닷컴에 매각계획 밝혀
- 디티브이인터랙티브: DVB-H 제너레이터 개발
- 코아메직: 픽셀릭스와 공식합병
- 디게이트: '공통왕' 게임, 일본서 맹위
- 시코드: 텔레윈과 블루투스키트 17억 공급계약

Venture Focus

- 신규투자업체 KST (코리아스타백)

Special Interview

- 이노칩테크놀로지 박인길 사장

Office Theme

- 이철현 이력자 [茶]

<< 1,2월 LG벤처투자 소식

• 신규투자 : KST (코리아스타백)

분 아 : 반도체 / 디스플레이
투자액: 8억
투자일: 2월 9일

<< 1,2월 VC 소식

모태펀드 출자금 1950억원 확정

한국벤처투자는 2006년도 모태펀드에서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출자금 규모를 총 195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 신규조합에 출자 약정한 1245억원 대비 크게 (63%) 늘어난 규모이다(2/9)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GP서밋 개최

한국벤처투자는 2월20일 코엑스에서 '2006년 모태펀드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 벤처캐피탈 업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벤처캐피탈 최고 경영자(CEO)와 펀드매니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1,2월 투자업체 소식

렉스피아, 아이트브릿지 계열사로

홈네트워크 전문업체 아이트브릿지가 발광다이오드(LED)전문업체 렉스피아 주식 40.89%를 인수, 계열 편입했다 (12/28)

아바코, 케이이엔지와 35억 공급계약

아바코는 지난 5일 K-eng 주식회사와 34억8700만원 규모 LCD 관련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1/6)

오이유직: 영진닷컴에 매각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사가 보유한 오이유직 지분 전량을 영진닷컴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1/19)

DTV인터랙티브, DVB-H 제너레이터 개발

디티브이인터랙티브가 세계 최초로 DVB-H 전용 스트림 애플리이저(모델명 DHA100)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7)

코아메직-픽셀릭스 공식합병

코아메직이 휴대전자기기 업체 픽셀릭스와 공식 합병했다 (2/9)

디게이트, 일본서 맹위

디게이트는 자사와 넷웜(대표 노정태)이 공동 개발하고 손오공이 국내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이케이드게임기인 '공통왕'을 지난해 9월 일본 시장에 출시된 이후 총 4000여대 가량을 판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2/14)

시코드, 텔레윈과 17억 공급계약

시코드는 텔레윈에 블루투스 키트 17억여원 어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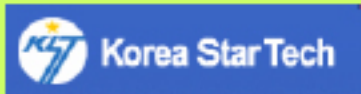
㈜ 코리아스타텍

<http://www.ks1.co.kr>

대표이사 : 김부일

설립일 : 2004년 4월

사업분야 : LCD, CVD, PDP, 반도체 세정 및 용사 coating



코리아스타텍은 LCD, CVD, PDP, 반도체 세정 및 용사 coating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김부일 대표를 포함한 세정 및 용사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엔지니어 그룹은 2003년 코리아스타텍을 설립하여 LCD 및 반도체의 주요 장비 및 부품에서 공정 중 발생하는 미세오염을 세정하고 세라믹 용사 등의 방법으로 제거, 재성 및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설립 후 현재까지 국내 굴지의 LCD 및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세정 및 용사를 제공 중에 있으며, 원가절감의 효과와 미세입자 감소로 인한 공정효율의 향상 및 생산성 증대로 인해 관련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코리아스타텍의 검증된 기술력과 LPL등의 안정적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고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이다.

Event / Notice

안근영 팀장 둘째 가지

2월6일 오전, 안근영 팀장 가정에 둘째가 태어난 소식이 있었다.

2.6kg의 건강한 아들이라는데 30대 중순이라니 기쁨이 2배로 넘쳤음에 틀림없었다. 자식 복이 넘친 안팀장님 더욱 행복하시길 바래요 ^-^



Office Theme

이럴 땐 이런 차(茶)



*** 대추차 :**
신경완화, 히스테리 완화

*** 뽕글레차 :**
어학체질개선, 혈액순환

*** 유자차 :** 감기, 신경통

*** 꿀차 :** 위장부진, 피로회복

*** 녹차 :** 비만, 피로회복, 예뻐

*** 자스민차 :**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환

*** 국화차 :** 두통, 혈액순환

*** 결명자차 :** 눈 피로, 변비

*** 모과차 :**
급제, 감기(기침), 더위먹었을때

*** 생강차 :** 간장기능 회복, 식욕 증진, 몸이 찬 여성에게 좋음

*** 인삼차 :** 원기회복, 노화방지



칩 배리스터, 정전기(ESD)필터, 레조네이터(Resonator) 등을 생산하는 이노칩테크놀로지는 지난 2000년 4월 설립된 이래 해마다 70% 이상의 매출신장을 거듭해 5년 만에 칩 부품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작년엔 매출액 350억원(장점)을 기록했으며, 지난 12월 6일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코스닥 상장 이후 더욱 변화를 시도하는 이노칩의 박인길 사장을 만나보았다.

늦었지만 코스닥 상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회가 어떨는지요?

지난달 상장식을 하면서 그 동안 이노칩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눈앞을 스쳐지나가더군요.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경영에 임해왔지만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은 LG벤처를 비롯한 투자자, 그 외 도음주신 분들께 대한 감사의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상장이라는 것이 어떤 몰입식처럼 느껴질 수 있기에 지난 과거에 대한 소회보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노칩테크놀로지는 칩배리스터, ESD filter 등 세라믹 수동 소자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로 성장한 비결은 어디에 있으니까?

저희 이노칩테크놀로지의 경영철학은 속도, 집중, 유연성입니다. 창사 초기 안정된 경영역량을 적시 적소에 투입, 집중하고 시장환경에 유연성있게 대응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R&D에 있어 매출액의 6~7%에 이르는 투자를 비롯하여 전략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품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 또한 저희 이노칩의 장점이자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장사 이노칩테크놀로지의 미래상과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이노칩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이제 만 2개월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공식적인 시험을 치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노칩의 비전은 일본의 무라타와 같은 중일부품회사로의 도약입니다. 이를 위해 칩부품 뿐만 아니라 모듈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내부 인력의 양성, 기술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계속 확장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노칩은 매년 2배에 가까운 성장을 해왔으며 올해도 2배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과거 회사의 역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증명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여 우리의 비전을 향해 차근차근 다가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LG벤처투자의 파트너로서 좋은 점, 기대하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LG벤처투자의 파트너라기 보다는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LG벤처투자의 조언이 지금의 이노칩이 되는 데 큰 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하는 점이려면 이노칩과 함께 상생하며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또한 LG벤처투자와 이노칩의 상생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